



사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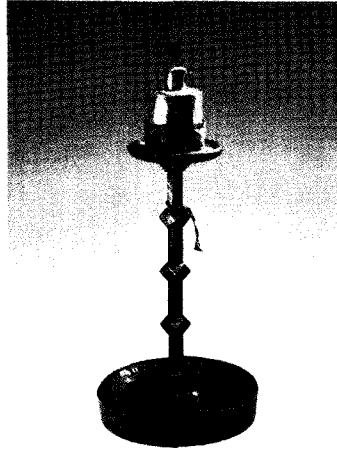


사진 2



사진 3

목제등가(木製燈架)

등경에 이어 이번에는 등가(燈架)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 등경이나 등가는 모두 등잔대의 하나이지만, 등잔을 옆에 엮거나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등경 또는 '등경걸이'라고 하고, 등잔을 대 위에 엮어서

사용하는 것은 등가라고 한다. 등가는 등경처럼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[燈盤]나 기름찌꺼기를 받치는 기름받이가 없다. 따라서 등잔대 높이가 고정되어 있고, 기름찌꺼기 또한 등잔 안에서 다 소모되어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. 그 형태를 보면 몽툰한 나무토막처럼 단순한 모습에서부터 밑받침[등재받이굽]과 기둥[竿柱], 등잔받침[등받침 또는 등꽃이]이 결합된 다소 복잡한 형태도 있다. 시기적으로는 기능의 단순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등경보다 등가가 더 앞선 방식일 것으로 추측된다.

하지만 등가는 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석유등잔(호롱)과도 함께 사용될 정도로 훨씬 후대까지 사용되어 온 기본적인 등잔대이다.

등가의 재료는 역시 등경과 같이, 나무뿐만 아니라 무쇠나 놋쇠, 백동, 청동, 빚지[紙繩] 등이 사용되었고, 더러 토기나 도자기, 석재와 같은 것도 볼 수 있다.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하고 형태도 다양한데, 아무래도 구하기 쉽고 가공(加工)하기도 수월해 전문 장인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. 금속류나 도자기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소박한 멋과 그윽한 아취를 느끼게 해 준다. 솜씨를 부린 것들은 등잔받침대인 기둥[竿柱]에 많은 장식이 이루어져, 대매듭, 줄구슬, 끈노새김, 기하학적 돌을새김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. 밑받침은 재떨이와 서랍을 겸하도록 하여 실용성을 갖추고 있지만, 간혹 연꽃모양을 조각해 한껏 멋을 낸 장식적인 것도 볼 수 있다. 소박한 등가들은 밑받침에 별다른 장식 없이, 혹시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튀거나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턱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 단순하게 마무리한 것도 있다. KEA

사진 및 자료 / 국립민속박물관, 제주민속박물관
글 /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[사진 1] 목제등가[木製燈架]// 조선후기// 높이 15cm, 등잔지름 10.5cm// 제주민속박물관
[사진 2] 목제등가[木製燈架]// 조선후기// 밑지름 20.7cm, 높이 46.7cm// 국립민속박물관
[사진 3] 목제등가[木製燈架]// 조선후기// 밑지름 13.8cm, 높이 37.2cm// 국립민속박물관